

##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 성과평가 등급 5단계 세분화… 한성숙 “신상필벌 체계 확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구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강화  
성과 부진시 명예졸업제 등 적용  
韓 장관 “진짜 지방시대 기반 마련”



지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민간 참여 유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역특구)에 대해 명예졸업제 등을 통해 퇴출한다. 5단계로 세분화해 성과가 좋은 특구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지역특구의 지원 유형이 3개로 나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도입한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그동안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기부는 우선 지역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업을 지원한다.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처럼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한다. 지

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조례를 통해 기존 특례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는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한다.

개편안에는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과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장관(사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붙일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윈윈’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G모빌리티(KGM)가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신흥시장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토레스 HEV)와 무쏘EV 등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갖고 수출을 본격화한다.

## KG모빌리티

## 이스라엘 신차 출시 행사

KG모빌리티(KGM)가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신흥시장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토레스 HEV)와 무쏘EV 등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갖고 수출을 본격화한다.

KGM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쉬파임 지역에서 토레스 HEV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기자 40여명이 참가해 토레스 HEV의 성능과 연비 효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했다.

/양성운 기자 ysw@

## KAI, 리더십 공백에 성장 정체… 3분기 실적 급감

매출 7021억, 영업이익 602억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업계 “조속한 리더십 안정 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심각한 리더십 공백으로 ‘수익성·경쟁력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주요 방산 업체가 수출 호조로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 반면 KAI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리더십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AI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021억원, 영업이익은 6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6%, 2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2.6% 줄어든 390억원에 그쳤다.

회전율 사업 부문에서 소형무장헬기(LAH) 인도 지연과 폴란드형 수출이 지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KAI 본관 전경.

/KAI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 입찰에서도 잇따라 고전하면서 KAI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KAI는 약 1조원 규모의 ‘UH-60 성능개량 사업’과 1조 8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에서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는 대한항공-L3해리스(L3Harris) 컨소시엄에 밀렸다.

KAI는 연간 8조 4590억원의 수주 목표를 세웠지만 2분기까지 누적 수주는 3조 1622억원으로 목표의 37.3%에 그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AI 사장 공백이 반복되면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대형 프로젝트 대응력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차재병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나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답보 상태다. 최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은행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KAI 사장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장과 방위사업청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KAI 사장 인선도 그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 리스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양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유출,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의 ‘갑질’ 혐의를 받고 있으며,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평판 리스크와 행정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수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KAI가 내부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진

## K-인플루언서 성장 지원

썬한진이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을 위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OneStar·사진)’를 선보이고 K-인플루언서 브랜드 성장을 본격 지원한다.



6일 한진에 따르면 원스타 서비스는 글로벌 쇼핑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플루언서의 잠재력에 주목해 브랜드 론칭을 꿈꾸는 인플루언서에게 최적화된 물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창업 초기 인플루언서의 물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라이브 커머스 등 트래픽 집중이 발생하는 인플루언서의 판매 패턴에 맞춰 물류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 HJ중공업, 4만 5000㎥급 LPG·암모니아 운반선 개발

英 로이드선급 기본설계승인 획득

HJ중공업이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4만 5000㎥급 중형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승인(AiP)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HJ중공업은 3만 8000㎥급 LPG 운반선과 8만 8000㎥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에 이어 4만 5000㎥급 LPG·암모니아 운반선 개발까지 마치며 시장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스 운반선 선형 풀을 갖췄다.

HJ중공업과 로이드선급은 지난 7월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약 4개

월 간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HJ중공업은 중형급 선형 설계, 구조 최적화, 저온 강재를 적용한 타입 A 탱크 설계, LPG·암모니아 안전·효율 운송 기술을 담당했고 로이드선급은 선박·탱크 설계 적합성 및 구조 안전성을 심사해 AiP를 부여했다.

이번 선형은 전장 190m, 폭 30.6m, 화물창 용적 4만 5000㎥ 규모다. LPG와 암모니아는 물론 연화비닐모노머(VCM) 등 다양한 액화가스를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선주의 운항 선택지를 넓혔다.

암모니아의 독성·부식성에 대응해 누출 감지와 자동 환기 제어를 적용하고

균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온 강재를 채택하는 등 안전 설계를 강화했다. 로이드선급의 엄격한 기술·안전 기준과 LPG·암모니아 운반선의 건조와 장비에 관한 국제 규정(IMO IGC Code) 모두 충족했다.

HJ중공업은 이번 선형 외에도 메탄올 추진선, 이중연료선, 수소선박,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개발을 이어가며 발주 수요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로이드선급으로부터 기본설계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설계 역량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지속적인



HJ중공업은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4만 5000㎥급 중형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승인(AiP)을 받았다. 김보인 HJ중공업 기술영업 상무(오른쪽)와 김영두 로이드선급 GTSO 한국대표가 AiP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J중공업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해 탈탄소·친환경 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 홈쇼핑

## 검색·쇼핑 AI 기술 도입

홈쇼핑이 인공지능(AI) 기반 커머스 기술 기업 버즈니와 손잡고 AI 기술을 활용한 쇼핑 혁신에 나선다.

6일 홈쇼핑에 따르면 버즈니의 검색 AI와 쇼핑 AI 기술을 도입한다.

세계 검색대회 TREC에서 1위를 차지한 버즈니의 기술력이 담긴 검색 AI를 통해 이용자의 클릭 및 구매 이력을 분석, 검색 의도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쇼핑 AI는 홈쇼핑 방송 영상에서 이미지·음성·자막을 동시에 분석해 하이라이트 구간을 자동 추출하고, 쇼핑 영상으로 재편집하는 기술이다. 긴 방송 콘텐츠를 짧고 임팩트 있는 쇼핑 영상으로 빠르게 제작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